

수도권 규제 대못 뽑아 지방 경제에 대못 박나

국토부, 녹지·관리지역 공장 건폐율 20%→40%로 상향

비수도권 공동 대책 시급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수도권 특정지역 내 공장증축을 상향하기로 하면서 국토균형발전은 무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에 공장을 지으려 했던 수도권 기업의 투자포기 등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돼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

녹지지역은 도시 인근 공원이거나 유보지(留保地)며, 관리지역은 도시 밖의 땅 중에서 환경보호 필요성이 큰 지역을 빼고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수도권 내에서 일부 지역의 공장증축이 상향되면서 수도권 규제를 우회적으로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녹지·관리지역 규제완화 대상이 전국이긴 하지만, 그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녹지지역 내 공장 42개 중 증

축이 필요한 곳은 없으며, 관리지역 내에는 공장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도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이 거의 없다.

결국, 그동안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자 개발제한을 받아왔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2009년 한시적으로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축을 규제를 풀어줬을 때도 경기도에서만 320개의 공장이 증축을 했으며, 광주는 4개에 그친 전례도 있다.

일부에서는 비수도권의 경우 혜택은커녕 현재 유지했거나 유지중인 수도권 기업이 이탈하는 등 부작용만 겪을 것이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국토균형발전 정책과도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MB정부에서 수차례 강행하다 좌초됐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수도권경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추진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축을 완화로, 광주에서 혜택을 받을 공장은 단 한곳도 없다"면서 "결국 수도권 내 공장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조치로, 광주의 경우 혜택보다는 오히려 기업 유치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투표독려? ...본심은 선거운동

최근 6·4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앞다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광주 도심 곳곳에 내걸고 있다. 6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어지럽게 내걸린 관련 현수막을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도지사 여론조사 '지지도' 아닌 '적합도' 조사

■ 새정치 후보 경선 방식 확정 공론조사 참여 선거인단 전화면접 '하향식' 공모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방식으로 '공론조사 50% + 여론조사 50%'가 유력한 가운데 경선에 적용되는 여론조사에서 적합도를 묻기로 했으며, 연령별로 할당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는 '보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또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을 하향식으로 하기로 했으며 새누리당 지지층까지 포

느냐는 식으로 적합도를 묻기로 했다.

또 여론조사시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 표본 미만으로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20~30대의 경우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유효 표본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보정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후보별 프로파일은 2개 이내의 경력을 20자 이내로 제시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추첨을 통해 '한국조사협회

(코리아)에 등재된 5개 이상 10개 이하의 조사기관 중 2개 조사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왜곡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확인'을 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주문했다.

공론조사에 있어 선거인단 모집 방식은 '하향식'으로 하기로 했다. 유권자의 신청을 받는 방식의 '상향식'이 아닌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인단을 야당 지지층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새누리당 지지층도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공론조사 투표는 토론회가 열리는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당선 결정은 공론조사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 결과 50%, 2개 여론조사에서 실시한 결과의 평균값 50%를 반영하고, 최종 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해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앞바다 화물선 침몰 2명 사망·11명 실종

북한 선원 3명·시신 2구 송환

북한 선원 16명을 태우고 항해하던 화물선이 여수 인근 공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

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 여수시 거문도 남동쪽 63km 지점(공해상)에서 몽골선적 4300t급 화물선 '그랜드포춘1호'가 침몰했다.

이 선박은 중유 50t과 철광석·구리파우더 6500t 등을 싣고 북한 정진항을 출발해 중국 양저우(揚州)항으로 항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지점은 우리 측 영해에서 56km 떨어진 공해상으로, 선박 극적이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해상 항로라고 해 경 측은 밝혔다.

해경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이 날 새벽 5시께 바다에서 표류 중인 기관장 K씨를 비롯해 모두 3명을 구조하고 이어 시신 2구를 수급했다. 사고 당시 선박에 승선한 인원은 모두 16명으로, 남은 1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풍랑과 거센 조류 탓에 해경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정부는 6일 오후 구조된 선원 3명과 시신 2구를 관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법무법인(유)바른길의 새출발을 알립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 바른길은 경감주 전 광주고등법원장님**을 모시고 **유한회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고객에게 헌신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성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경감주·김용일·문정현**

법무법인(유)바른길 www.barungil.co.kr

- 상무 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0 (전문건설회관1층) T:381-0050 F:381-0260
- 법원분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101-1 (법원사회관1.2층) T:232-0050 F:232-1305
- 서울분사무소: 서울 서초 반포대로 86 (신원빌딩3층) T:3473-0050 F:3473-0051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기아 062226-0001

광부공인 표준 연비 및 환급
· C200CI 1.76cc, 150kg, 자동7단, 배양연비 11.1km/l (도시연비:9.9km/l, 고속도로연비:13.9km/l), 4등, 배양CO2배출량 159g/km · C200CI 1.76cc, 150kg, 자동7단, 배양연비 11.1km/l (도시연비:9.9km/l, 고속도로연비:13.9km/l), 4등, 배양CO2배출량 159g/km · C220CI 2.14cc, 173kg, 자동7단, 배양연비 13.6km/l (도시연비:12.5km/l, 고속도로연비:16.3km/l), 2등, 배양CO2배출량 125g/km
· C220CI 2.14cc, 173kg, 자동7단, 배양연비 13.6km/l (도시연비:12.5km/l, 고속도로연비:16.3km/l), 2등, 배양CO2배출량 125g/km · C220CI 4MATIC 2.14cc, 170kg, 자동7단, 배양연비 14.8km/l (도시연비:13.2km/l, 고속도로연비:20.2km/l), 2등, 배양CO2배출량 133g/km · C250 2.996cc, 162kg, 자동7단, 배양연비 14.8km/l (도시연비:13.2km/l, 고속도로연비:20.2km/l), 2등, 배양CO2배출량 133g/km · C30 3.0cc, 183kg, 자동7단, 배양연비 8.8km/l (도시연비:8.8km/l), 5등, 배양CO2배출량 204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하중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